

기소무라 사적 도리이토게(鳥居峠)

표고 1,197m.

기소무라(木祖村)와 시오지리시(塩尻市) 나라이(옛 나라카와무라)의 경계에 위치하며, 태평양으로 흐르는 기소강과 일본해로 이어지는 나라이강의 **분수령**이기도 하다.

와도(和銅) 6년(713) 무렵에는 '아가타자카(懸坂)'라고 불렸으며, "**기소지(吉蘇路)**"라는 명칭으로 관도(국가에서 관리하던 간선길)로 사용되고 있었다.

가마쿠라 시대 이후에는 '**나라이토게(奈良井峠)**' 혹은 '**야부하라토게(藪原峠)**'라고 불린 기록이 있으나, 메이오(明応) 시대(일설에는 다이에이(大永)시대) 이곳에서 마쓰모토(松本)의 오가사와라씨(小笠原氏)와 싸워 싸움에서 이긴 기소 요시모토(木曾義元)가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리이(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문)를 만들었다 하여 '도리이토게'라는 이름이 붙여졌다.

에도 시대에 이 고개는 나카센도(교토에서 에도에 이르는 내륙 길) 중에서도 손꼽히는 험한 곳이었지만,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여 산킨코타이(参勤交代, 에도 막부가 다이묘들을 교대로 일정 기간 에도에 머무르게 한 제도)를 하는 다이묘, 닛코레이헤이시(日光例幣使, 닛코 도쇼구에 물자를 봉납하는 칙사) 등 공무자를 비롯해, 이세신궁이나 젠코지를 참배하는 선남선녀, 온타케산을 오르는 순례자 등의 통행으로 크게 붐비었다.

지정구역 내에는 '도리이토게 옛 전장비', '메이지 천황 주필 기념비', '메이지 천황이 직접 심은 소나무', '온타케 요배소', 기소 요시나카(木曾義仲)가 전승기원문을 쓸 때 사용했다는 샘물 '**스즈리미즈(硯水)**', 방호를 위한 '낭연대(봉화대)·요새 터'라고 전해지는 곳도 있다.

'**자식을 점지해주는 칠엽수 전설**'과 마쓰오 바쇼(松尾芭蕉)의 하이쿠 구절에도 나오는 '칠엽수 거목'이 군생하고 있다.

'기소무라 문화재 탐방'

(1986.3.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)에서